

폭염에 농산물 비상...수박·토마토·계란값 줄줄이 급등

이상기후 생육부진에 수요 겹쳐
채소·과일류 40% 이상 치솟아
수박 한 통에 3만원 넘어서고
복숭아 등 제철과일 많이 올라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등 지속적인 이상기후로 일부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특히 생육 부진과 여름철 소비자 수요로 인한 가격 상승세까지 맞물리면서 채소·과일류는 전년보다 40% 이상 가격이 치솟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토마토(상품·1kg) 소매 가격은 지난 1일 기준 6716원으로 전년(4710원)과 평년(5044원) 대비 각각 42.6%, 33.2% 상승했다. 전월과 비교하면 69.0%나 올랐는데, 이는 낮 최고기온이 35~37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줄기와 열매에 녹이 낀 것 같은 증상으로 상품성 및 생산성을 저하하는 '녹응애' 등의 확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배추와 무도 소매가가 상승했다. 다만 배추는 지난해 이상기후에 따른 생육부진으로 '배추 대란'이 발생했고, 무 역시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점을 고려해 정부에서 사전 대응한 덕분에 그나마 지난해 대비 상승폭이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봄배추를 사전 수매하고,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7500 t의 무를 수매했다.

현재 배추(상품·1포기) 소매가는 6114원으로 전년과 평년보다 11.2%, 11.3%씩 올랐다. 배추는 매년 여름철 가격 변동성이 큰 성향이 있어 한달 전보다는 68.0% 비쌌다.

무(상품·1개) 소매가는 전월 대비 31.6%, 평년보다는 4.7% 높았다. 그래도 정부의 무 수급 대응으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10.4% 가격이 낮았다.

제철 과일도 이상기후 여파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여름 대표 과일인 수박(상품·1개) 소매가는 지난 1일 기준 3만 3337원으로 전년 대비 17.6% 올

랐다. 평년(2만 6667원)에 비해서는 25.0% 높은 수준으로 수박 소매가는 지난 7월 15일 처음으로 3만원 선을 돌파한 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박은 올 여름 잇따른 폭염·폭우 등으로 생육이 부진했고, 여름철 소비자 수요가 급등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커지고 있다.

이 밖에 복숭아(상품·10개)는 2만 1133원으로 1년 전보다 25.1% 올랐고, 한국에서 키우는 주 품종인 '캠벨얼리' 포도(L과·1kg)는 4.4% 상승한 1만 3000원을 기록했다.

축산물에서는 한우, 돼지, 닭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소매가가 형성됐지만, 계란가격이 나 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계란(특란·30개) 소매가는 6984원으로 전년 대비 7.9% 올랐는데, 최근 계란 생산량이 지속 감소할 것이라 예상이나 온도로 분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산란계 하루 평균 식용계란 생산량은 4864만 8515개로 전 분기보다 3.6% 감소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는 이달 중으로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1.7% 줄어들 것이라 전망도 내놔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최근 폭염 여파로 일부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수박 평균 소매 가격은 지난 1일 기준 1개에 3만 3337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17.6% 비싸다. /연합뉴스



베트남 북부 삼성 법인 근로자들이 공장 구내식당에서 한국 닭고기 특식을 경험하고 있다. <aT 제공>

aT, 삼성웰스토리와의 베트남에 K-푸드 매력 전파

근로자 'K-급식 체험 홍보 행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달 18~30일 농림축산식품부, 삼성웰스토리와 함께 베트남 북부에 위치한 삼성 법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산 닭고기를 활용한 'K-급식 체험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삼성웰스토리는 현재 베트남, 중국, 헝가리 3개국에서 해외 단체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급식 메뉴 개발 시 K-푸드를 적극 활용하는 운영 방식을 통해 현지 급식 체계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또 삼성웰스토리가 직영하는 마트 내 K-푸드 입점 품목을 지속 확대함으로써 K-푸드 수출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aT와 삼성웰스토리가 지난해 10월

국산 농식품 수출 다변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과 연계한 협력사업으로, 베트남 최대 수출 품목인 한국산 닭고기의 소비 저변과 수출 확대를 목표로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베트남 북부에 위치한 삼성 법인 내 9개 사업장에서 총 3차례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한국 영계를 활용한 삼계탕, 옛날통닭 등 1만 8000식의 특식이 제공됐다. 특히 한국의 조식과 중식 시기에 맞춰 행사를 진행하는 등 한국식 식문화도 소개했다.

현장에서는 삼계탕 부재료를 비롯해 향후 공장 내 미니마트에 입점할 예정인 다양한 K-푸드를 전시·시식하는 행사를 열고, 럭키드로우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상반기 농식품 무역적자 165억 달러...전년비 소폭 개선

미국 관세 조정 따라 확대 우려

올 상반기 농식품 무역수지 적자폭이 전년에 비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의 농식품 무역수지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 지속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최대 농식품 교역국이 미국인 만큼, 아직 세부 조정 등 협상 결과에 따라 올 하반기 적자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가 발표한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 농식품 총 수입액은 216억 310만 달러로, 전년 동기(217억 3270만 달러) 대비 1억 2960만 달러(0.6%)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농식품 총 수출액은 50억 9250만 달러로 전년 동기(46억 8520만

달러)보다 4억 730만 달러(8.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농식품 무역수지 적자폭은 165억 1060만 달러로 1년 전(170억 4750만 달러)에 견줘 5억 3690만 달러(3.1%) 줄었다.

FTA 체결국과의 농식품 무역수지 적자폭도 전체 농식품 적자 증가폭에 견줘 소폭 둔화됐다. 올 상반기 FTA 체결국 대상 수입액은 전년보다 8.8% 증가한 190억 2160만 달러, 수출액은 4.0% 증가한 40억 8690만 달러를 기록했다. FTA 체결국과의 총 농식품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보다 1.1% 감소한 149억 3470만 달러로 집계됐다.

다만, 올 상반기 적자폭 개선에도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농식품 무역수지 적자(329억 2000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우려가 나오는 주요 이유로는 하반기 들

어 적용되는 미국과의 상호관세 도입이 꼽힌다. 미국은 올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 농식품 총 수입액의 29.7%, 수출액의 18.7%를 기록하는 등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대미 상호관세가 15%로 확정됐지만, 쌀·쇠고기 등을 제외한 다양한 작물 등의 향후 세부 조정 협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데다 기존 무관세에서 관세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수입에서는 양파 수입량이 전년 대비 57% 증가한 1만 3800 t으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멜론(50.0%), 꿀(40.6%), 울무(30.7%) 등 순으로 수입량이 늘었다.

수출 품목으로는 체리(844.3%), 키위(459.9%), 호두(331.4%) 등의 수출량이 늘었지만, 이 밖에 대부분의 품목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여름 휴가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농식품부 9일까지 130곳 대상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오는 9일까지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여름 휴가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들의 먹거리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는 양동시장, 봉선시장, 운암시장 등 총 3개 전통시장이, 전남에서는 목포중앙시장, 목포동

부시장, 목포청호시장, 중마시장, 정남전장홍도요시장, 강진읍시장, 해남매일시장, 무안전통시장, 함평천지전통시장 등 9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행사기간 동안 해당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6만 7000원이면 1만원을,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 130개의 행사 참여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장 내 게시된 안내판, 바닥 유도선 등을 따라가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행사가 전통시장에서 이뤄지는 만큼,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부담완화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기준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에만 실시됐지만, 올해는 여름 특별 할인 행사에 포함해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디케이 주식회사

공 기 의 새 로 운 정 의
공 간 을 빛 내 는 선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삶.

모 든 순 간 을 더 건 강 하 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

